

프렌치 후드 제작에 관한 고찰 I

김 경 희 · 문 윤 경*†

서일대학 의상과 전임강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Frenchhood

Kyung-Hee Kim and Yun-Kyeong Mun*†

Full-time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Seoil College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2. 11. 12. 접수 : 2003. 3. 29. 채택)

Abstract

The study was designed to review the changes in designs and the manufacturing methods of french hood, one of the headdress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showing the appearance of costume, to understand design expression techniques through manufacturing of the head dress of the western costumes, and to provide materials to exert creativity for new designs.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portrait study, I manufactured a frenchhood. I set the study cope as from the late 15 century when frenchhood was used for the first time, to the mid 16 century. For the frenchhood selected, I examined the hair sty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hood, and the pattern first, and proceeded to manufacturing. I used velvet and silk for the textile as explained in the literature. And, I purchased such similar ornaments as shown in the pictures, making the color so similar to the original to the most. Dimensions in manufacturing were those in the literature, since the study is focusing on the reproduction of the features of the portraits. Dimensions of detailed decoration were measured using the ratio of the headdress in the portraits.

Key words: frenchhood(프렌치후드), headdress(헤드드레스), portrait(초상화).

I. 서 론

복식은 인체를 바탕으로 하여 착용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대변하고 그 시대의 문화적인 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헤어스타일(hairstyle)과 헤드드레스(head dress) 또한 복식의 외관적 특징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헤드드레스는 복식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성에 따

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등 생활에 관한 많은 것들과 어울어져 복식을 자극하고, 가장 넓은 관심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모습을 형성하여 복식과 더불어 미적인 면을 강조하는 아이템이다.

따라서 과거복식에 대한 실물제작은 현대복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현대와 미래패션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복식의 외관적 특징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 교신저자 E-mail : munfish@hanmail.net

하는 헤드드레스의 하나인 프렌치후드(frenchhood)를 선택하여 고찰 및 제작을 통한 연구를 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문헌연구와 초상화분석을 기초로 하여 프렌치후드를 제작하였으며, 시기는 프렌치후드가 나타나기 시작한 15세기말부터 16세기 중반으로 정하였고, 후기의 프렌치후드는 II에서 제작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작할 작품의 선정을 위해 프렌치후드의 형태, 구조적인 특징, 소재, 색상, 사용된 장식 등 복식문화에 세부적인 사항을 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고찰한다. 이러한 선정된 프렌치후드를 제작하기 위하여 헤어스타일 및 프렌치후드의 특징을 살펴보고 패턴형태를 파악한 후 제작하였으며, 소재는 문헌에 제시된 벨벳, 실크, 다양한 두께의 모시등을 사용하였다. 또 장식은 사진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보석과 진주를 사용하였다.

제작시 사용된 치수는 본 연구가 초상화의 모습을 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문헌에 나타난 치수를 사용하였으며 부수적인 장식에 관련된 치수는 초상화 헤드드레스의 비례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헤어스타일의 특징

헤어스타일은 16세기초까지 15세기 스타일이 계속되었고 결혼한 여자들은 대부분 머리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머리가 드러났을 때는 머리 중심부터 부드럽게 빗질을 하고 똑바르게 빗어 넘겼다. 긴 끈을 땅아 내린 머리가거나 꼬거나 뒤틀거나 감거나 그 모든 빗는 방법을 조합하여 종종 리본으로 혼합한 형태로 하였다. 어떤 때는 머리에 립스틱을 매달기도 했으며 머리를 그대로 늘어뜨리기도 했고 부분적으로 가리기도 하였다¹⁾.

여성들의 머리는 단순한 형태로 변화해 앞중심에

가리마를 타고 앞이마를 전체적으로 내놓았으며 뒷머리는 목덜미에 붙이는 단순하게 정돈되고 장식이 없는 헤어스타일을 하였다. 초기의 헤어스타일은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늘어뜨리는 스타일이었고 이 늘어뜨린 머리카락의 귀 아래부터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주었다. 그 후 곧은 머리 대신에 머리카락을 부풀리거나 고수머리로 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었다. 중반에는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머리카락을 위로 올리고 패드 뒤로 머리카락을 올린 스타일이 등장하면서 헤어스타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²⁾.

프렌치후드의 헤어스타일은 가리마를 타서 위는 넓고 편편하게 빗었으며, 이마위로 머리카락이 많이 보이도록 뒤쪽으로 정리하여 흰색 린넨으로 만든 코이프를 쓰고 턱에서 리본으로 묶었다.

2. 프렌치후드의 특징

16세기 초기의 후드는 침두형의 고딕풍을 연상시키는 헤닝(hennin) 모자가 유행하여 높이가 1m까지 되는 등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차츰 사라져서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사라졌다³⁾. 프렌치후드는 일반적으로 앞쪽의 머리카락이 보이도록 머리의 뒤쪽에 썼으며⁴⁾ 안쪽에는 흰색 린넨으로 만든 코이프나 금사로 짠 망을 쓰고 그 위에 실크로 만든 캡을 뒤통수에 쓰고 턱에서 끈으로 매어 착용하였다⁵⁾.

본 연구에서는 프렌치후드의 특징을 형태면에서 초기형태와 앞부분의 테두리가 뒤로 젖혀진 형태, 뒤로 젖힌 부분이 분리된 형태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렌치후드의 초기형태

프렌치후드는 15세기 말 프랑스에서 유래된 대표적인 헤드드레스로 반원형 후드가 발전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그림 1>의 형태는 반원형으로 머리 양쪽에 금색 그물과 머리장식이 보이게 윗부분을 뒤로 넘겨 안감

1) 전선정, "서양근세 여성의 머리형태와 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16.

2) *Ibid.*, p.62.

3)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2001), p.157.

4) Mary Brooks Picken, *A Dictionary of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99), p.177.

5) 신상옥,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1999), p.178.



〈그림 1〉 프렌치후드의 초기모습.
(British Costume from Earliest Time to 1820, p.204)



〈그림 3〉 스페인 Joanna 여왕.
(Tudor Costume And Fashion, p.109)



〈그림 2〉 장식관을 쓴 프렌치후드.
(Tudor Costume And Fashion, p.148)



〈그림 4〉 1502년 프렌치후드.
(Tudor Costume And Fashion, p.63)

을 보이게 착용한 프렌치후드의 원형이다. 색상 및 소재는 검정색 벨벳을 걸감으로, 안감은 흰색이나 유색 실크를 사용하였다. 〈그림 2〉도 반원형후드로 앞부분을 뒤로 넘겨 착용하였으며, 양옆에 슬래쉬를 넣은 형태이다. 이후드의 장식은 후드 위 뒷부분에 머리 장식관을 썼는데 이러한 장식관은 왕비와 귀족 여성들이 카드게임을 할 때 썼던 헤드드레스이다⁶⁾.

〈그림 3〉은 스페인의 요나(Joanna)여왕의 모습으로 반원형 형태의 후드를 착용하였는데 안쪽에는 금색장식을 한 실크 코이프를 썼고 그 위에 붉은색 실크 안감을 낸 검정색 벨벳후드를 착용하고 있다. 앞의 후드처럼 위 부분을 접지 않고 테두리에는 금은물

장식이나 금색으로 수를 놓은 띠로 장식하였다. 후드는 코이프의 앞쪽 금색부분이 보이도록 살짝 밀어 착용하였다. 〈그림 4〉는 1502년 프렌치후드의 형태로 앞의 〈그림 1〉, 〈그림 2〉처럼 위 부분을 접어 안감을 보이게 하여 착용하였으며 안쪽에 금색 거즈로 주름 잡은 코이프를 착용하였다. 〈그림 5〉는 코이프 위에 후드를 썼는데 이 후드는 앞부분이 어깨까지 닿는 길이며 일반적으로 색이 다른 비싼 안감을 사용하였다. 계급이 높고 부자인 여성들은 이 후드의 앞쪽 가장자리에 보석장식을 했을 것이다. 앞부분이 양 관자놀이 사이에서는 휘어서 양볼을 덮었다. 후드의 뒤쪽은 단순한 반원형으로 부드러운 주름을

6) Herbert Norris, *Tudor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97), p.104.



〈그림 5〉 숙녀의 초상화.
(복식의 역사, p.672)

만들면서 둥근 모양을 이루며 늘어지도록 해서 풍성함을 주었다. 이부분을 대개 벨벳으로 만들기도 했으나 때로는 커튼이나 베일로 대신하기도 했다⁷⁾.

플랑드르 사람들의 헤드드레스인 베긴(Beguin)은 프렌치후드의 유래 중 하나로 베긴 tm(Beguines)는 람버트 베긴(Lambert le Begue)가 창설한 여성 종교 교단으로 13세기에 중요하게 되었다. 이 단체는 독일과 플랑드르, 프랑스 여러 도시에 설립되어 이 교단 단원들은 흰색 코이프를 썼고 이때부터 베긴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러한 베긴은 직사각형의 리넨, 론(lawn) 또는 흰색 캄브릭(cambrie)으로 만든 아주 간단한 헤드드레스로 플랑드르 평신도 여성들이 많이 썼고 15세기와 16세기 플랑드르 화가들 그림에서 자주 볼 수 있다⁸⁾.

2) 위 부분을 뒤로 젖힌 프렌치후드

프랑스와 영국에서 16세기 중반까지 유행한 프렌치후드의 형태는 베긴과 비슷한 형태의 헤드드레스로 뒷부분을 갈대기의 통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소재 및 색상은 길감을 검정색 벨벳으로 사용하고 안감을 실크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왕족과 귀족 그리고 나이 든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였다.

〈그림 6〉은 1515년 마가렛 튜더(Margaret Tudor)의 초상화에 나타난 프렌치후드로 형태는 후드의 앞쪽



〈그림 6〉 Margaret Tudor. 1546.
(Tudor Costume And Fashion, p.337)

테두리가 뒤로 젖혀져 있고 후드의 뒷부분은 갈대기의 통형으로 되어 있다. 착용방법은 캡 위에 후드를 썼는데 젖혀진 테두리의 안감이 캡의 위로 비스듬하게 보이며 머리 뒤쪽으로 많이 내려져 있다. 색상 및 소재는 후드의 길감으로 검정색 벨벳을 사용하고 안감은 흰색 새틴을 사용하였다. 캡은 붉은색 실크를 사용하였다. 장식은 후드 테두리에 밴드대신 파이핑을 사용하여 젖혀진 부분이 더 뚜렷하게 밖으로 곡선을 갖도록 하였으며 캡의 거즈와 실크가 붙여진 부분에는 진주를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1542년 한스 홀바인(Hans Holbein)이 그린 캐서린 하워드 여왕(Queen Catherine Howard)이 착용한 프렌



〈그림 7〉 Queen Catherine Howard.
(What People Wore, p.53)

7) 블랑쉬웨인(저) 이종남의 3인(역), 복식의 역사(서울: 까치, 1996), p.291.

8) Ibid., p.112.

치후드(그림 7)는 <그림 6>의 후드형태와 유사하며 안에 착용한 캡의 형태가 변하여 관자놀이에서 더 깊숙하게 오도록 만들어 곡선 부분이 귀의 앞쪽 볼에 향하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에 좁은 턱 끈을 달아 착용하였다. 장식은 안쪽의 캡은 밴드로 등근 곡선 부분을 장식하였으며, 검정색 벨벳 후드의 젓혀진 테두리 부분에 금색의 통형 모양과 원형 모양의 보석이 엇갈리게 장식되어져 있다⁹⁾.



<그림 9> Elizabeth공주.
(The Tudor Image, p.54)

3) 분리된 프렌치후드

1546년 엘리자베스(Elizabeth) 공주가 썼던 프렌치 후드(그림 8)의 형태는 뒤로 젖힌 부분이 후드에서 분리되어 거의 강남콩 형태를 하고 있다. 뒤로 내린 후드 양옆부분은 앞 쪽으로 끌어내 턱까지 내려오며, 앞부분은 뒤로 끌어 눈 높이까지 곡선으로 하였다. 머리 관 장식은 네 개의 진주와 루비를 금에 박아 넣어 장식하였다.

안에 금색 거즈 주름을 잡은 캡을 착용하였다.

<그림 9>는 1547년의 분리된 프렌치 후드이다. 형태는 분리된 후드 앞쪽의 밴드형태가 <그림 8>에서 보이는 것보다 앞쪽 선이 양옆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양옆의 폭이 많이 좁아진 형태이다. 색상은 대부분 검정색을 사용하였으나 붉은 색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소재는 벨벳을 사용하였

다. 장식은 진주나 유색 보석을 사용하여 후드의 분리된 부분과 분리된 밴드의 앞부분을 장식하였다.

또 귀족부인들이 썼던 프렌치후드(그림 10)의 형태는 뒤에서 자연스럽게 주름지게 늘어뜨리고 후드의 테두리 부분에 구슬로 장식된 밴드가 위에서 턱 밑으로 경사져 내려와 있다. 색상 및 소재는 검정색의 벨벳을 사용하였다. 머리 앞의 캡은 다른 프렌치후드와 다르게 색상 있는 실크로 주름잡아 착용하였다¹⁰⁾.

이러한 프렌치후드는 반원형 후드에서 시작되어 16세기 중반까지 착용되었으며, 후드 앞부분의 형태



<그림 8> Elizabeth 공주.
(Tudor Costume And Fashion, p.338)



<그림 10> 귀족부인이 착용한 프렌치후드 1530.
(Tudor Costume And Fashion, p.339)

9) R. Curner Wilcox, *The mode in Hat and Headdres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5).

10) Herbert Norris, *op. cit.*, p.339.

나 장식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Ⅲ. 제작 및 실제

1. 작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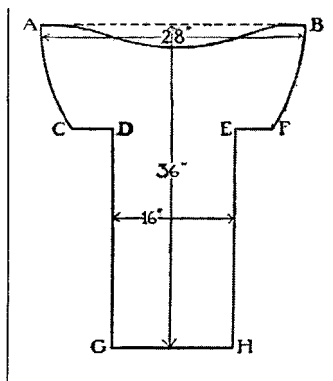
프렌치후드의 특징에서와 같이 형태면에서 분류한 3가지 프렌치후드의 초상화를 선정하여 초상화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제작하고자 한다.

1) 작품선정배경

첫 번째 작품으로 선정한 초상화는 <그림 11>의



<그림 11> 초기 프렌치후드 1510's.
(*English Costume from the Early Middle Ages through the Sixteenth Century*, p.197)



<그림 12> 초기 프렌치후드의 도형.
(*Tudor Costume And Fashion*, p.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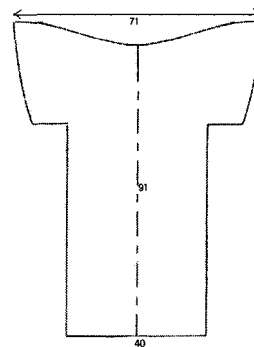
1510년 프랑스 여왕 앤(Anne)의 초상화로 프렌치후드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형태는 <그림 12>의 도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뒷모습은 반원형 후드가 발전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도형에서 보면 앞부분의 테두리 AB는 약간 움푹하게 곡선처리 되어있으며, CDG와 FEH로 표시된 테두리는 같이 봉제하여 통형으로 만들어진다. 후드는 머리 위에 꼭 끼는 캡 위에 썼는데 캡은 앞쪽에 주름잡힌 거즈가 연결되어 있다. 사용한 소재는 걸감으로 검정색 벨벳이 사용되었으며 안감은 흰색이나 유색의 실크가 사용되었다. 장식으로는 후드의 앞쪽 가장자리에 금색 틀에 보석을 박은 밴드가 사용되었고¹¹⁾, 캡의 테두리에는 진주로 장식되어 금색 거즈로 된 주름장식과 캡을 구분하여 주고 있다.

2) 제작방법

작품 1의 제작을 위하여 재료는 검정색 벨벳, 흰색의 자카드 실크, 금색 쉬폰(chiffon), 삼지, 철사, 종이테이프, 2mm 두께의 금속 브레이드(braid), 1cm 지름의 유색보석을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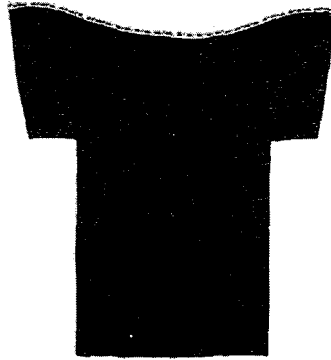
<그림 13>은 작품 1의 패턴으로 앞부분의 가장자리 폭 71cm, 전체길이 91cm이며, 뒤쪽 관은 40cm 폭으로 제도하고 앞쪽 가장자리의 보석장식 밴드는 1cm 폭으로 정하였다.

<그림 14>는 작품 1 후드의 뒤쪽 관을 봉제하지 않고 펼친 모습이다.



<그림 13> 작품 1의 패턴.

11) Iris Brooke, *English Costume from the Early Middle Ages through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p.196.



〈그림 14〉 작품 1 후드의 펼친 모습.

〈그림 15-a〉는 〈그림 11〉을 기초로 제작한 앞모습으로 완성된 패턴대로 겹감과 안감, 그리고 심지를 재단하여 겹감의 안쪽에 심지를 붙이고 안감과 봉제하여 통의 끝쪽으로 창구멍을 내었다. 바느질방법은 손바느질을 사용하였다. 제작방법은 후드 앞쪽의 둥글게 흰 테두리 부분이 〈그림 15-b〉와 같은 형태를 잡아주기 위하여 안감 시접부분에 테이프로 감아 정리된 철사를 고정시켜 공그르기로 정리하여 앞쪽에 고정된 철사가 정면에서 보이는 후드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후드 앞부분의 장식은 2mm 금색 브레이드로 1cm 넓이를 만들어 1cm 지름의 유색 보석을 2cm 간격에 한 개씩 배열하여 장식하였으며, 뒤쪽의 끈은 “ㄱ”자형의 두 모서리를 맞잡아 봉제하여 〈그림 15-c〉와 같이 통형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전면-a



측면-b



후면-c

〈그림 15〉 작품 1.

2. 작품 2

1) 작품 선정배경

두 번째 작품으로 선정한 초상화는 1515년부터 1535년 사이 프랑스 궁정에서 유행하던 프렌치후드로 〈그림 16〉이다. 이 프렌치후드의 특징은 〈그림 6〉과 유사한 헤드드레스로 뒤로 젖힌 프렌치후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후드 앞쪽의 가장자리는 초승달 모양의 곡선을 만들었으며 양 볼부터 귀 밑 부분까지는 꼭 끼게 만들었다. 후드는 앞쪽의 겹감이 뒤로 젖혀지면서 안감이 보여진다. 착용방법은 꼭 맞는 캡 위에 썼으며 캡은 턱밑으로 보이지 않게 끈으로 묶어 고정하였다. 캡의 안쪽에는 한점으로 주름잡은 금색거즈를 장식하여 캡 테두리에는 진주를 장식하



〈그림 16〉 French Noble Lady.

(English Costume from the Early Middle Ages through the Sixteenth Century, p.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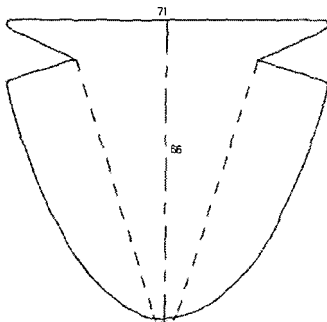
였다¹²⁾. 후드의 소재는 걸감으로 검정색 벨벳이 사용되고 안감은 흰색 실크로 하였으며, 캡은 흰색이나 유색의 실크가 사용되었다.

2)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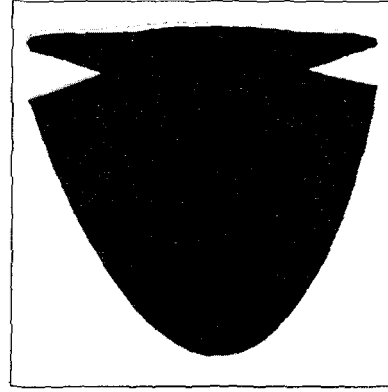
작품 2의 제작을 위하여 재료는 검정색 벨벳, 흰색의 자카드 실크, 금색 쉬폰, 심지, 철사, 종이테이프, 5mm 지름의 진주, 파이핑을 준비하였다.

〈그림 17〉은 작품 2의 패턴으로 앞쪽 폭은 56cm, 길이는 52cm로 제도하여 앞쪽 가로선의 길이는 귀밑 턱선까지 이어지는 캡의 길이보다 조금 길게 끝의 휘는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로 하였으며 위쪽 정수리 부분은 머리에서 세워지는 정도를 감안하여 후드의 가로선 길이를 정하여 제도하였다.

제작방법은 앞쪽의 정수리 안감이 세워지는 부분



〈그림 17〉 작품 2의 패턴.



〈그림 19〉 작품 2 후드의 펼친 모습.

에 초승달 모양의 심지를 안감 쪽에 고정시켜 손바느질로 하였으며, 앞쪽의 가장자리 안감과 걸감 사이에는 후드의 앞쪽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잘 휘어지지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뻣뻣한 철사를 심으로 하여 안감으로 감싼 파이핑으로 제작하였다(그림 18-a). 이렇게 봉제하여 펼쳐진 모습이 〈그림 19〉이며, 뒤쪽 등근부분을 맞잡아 봉제하여 끝이 살짝 벌려진 깔대기 모양의 통으로 봉제하였다(그림 18-c).

3. 작품 3

1) 작품 선정배경

세 번째 작품으로 선정한 초상화는 1532년에서



전면-a

측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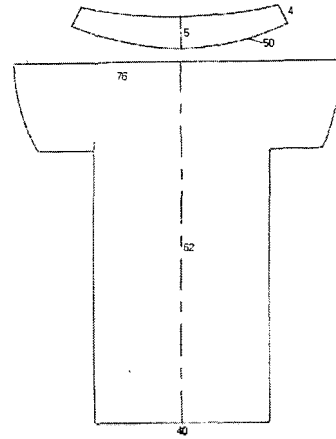
후면-c

〈그림 18〉 작품 2.

12) Herbert Norris, *op. cit.*, p.336.



〈그림 20〉 Anne Boleyn.
(*Tudor Portraits*, p.17)



〈그림 21〉 작품 3의 패턴.

1536년에 그려진 런던 국립초상화 미술관에 있는 작자미상의 영국여왕 앤 볼린(Anne Boleyn)의 초상화(그림 20)로 분리된 프렌치후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후드의 분리된 앞부분은 뽀뽀한 재료를 사용하여 검정색 벨벳으로 싸 형태를 고정하였으며, 착용한 형태는 앞부분이 U자(말발굽)형태를 이루고 뒷부분은 직사각형으로 재단되어 단순한 통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다. 분리된 앞부분과 뒷부분이 봉제되는 테두리는 진주로 장식하였으며, 안쪽에 착용한 캡은 두겹으로 주름잡은 금색거즈로 장식하였다.

2) 제작방법

작품 3의 제작을 위하여 재료는 검정색 벨벳, 흰색의 자카드 실크, 금색 쉬폰, 심지, 종이테이프,

5mm 지름의 진주, 가장 두꺼운 개심을 준비하였다.

패턴은 〈그림 20〉을 기초로 하여 제도한 것(그림 21)로 분리된 앞쪽의 U자형으로 보이는 부분인 양쪽 귀밑 부분은 폭 4cm, 가운데 부분은 5cm폭으로 제도하였다. U자형 부분이 비스듬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곡선으로 하였으며, 머리 뒤쪽의 늘어지는 T자 모형의 관은 작품 1의 패턴을 참고로 하여 폭 40cm, 길이 62cm로 제도하였다.

재단은 패턴의 형태대로 U자형과 후드 뒷부분의 걸감과 안감, 심지를 재단하였다. 앞쪽 U자형의 부분은 걸감과 안감 사이에 세워서 모양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모심지를 같은 모양으로 재단하여 봉제하였으며 테두리는 진주를 한줄로 장식하였다(그림 22-a, b). T자형의 뒷부분은 걸감에 심지를 붙인 후 안감과



전면-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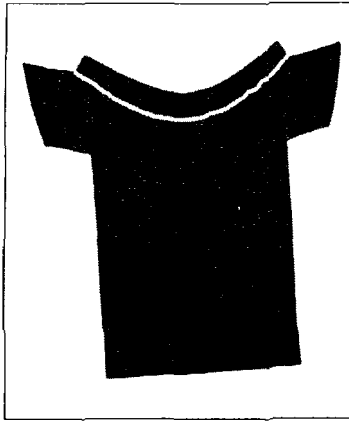


측면-b



후면-c

〈그림 22〉 작품 3.



〈그림 23〉 작품 3 후드의 펼친모습.

봉제하였으며, 각각 완성된 U자형과 T자형 부분은 안쪽에서 감침질로 봉제하여 연결하였고 그 펼쳐진 모습은 〈그림 23〉와 같다. 뒷부분의 통모양은 맞잡아 봉제하여 만들었다(그림 22-c).

IV. 결 론

프렌치후드는 15세기말 반원형후드가 16세기 중반까지 변화하여 대표적으로 초기형태, 위 부분이 뒤로 젖혀진 형태, 앞부분이 분리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세 가지 후드의 형태는 비슷하였으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초기의 형태는 앞부분이 머리의 형태를 따라 곡선으로 처리하여 자연스럽게 앞쪽의 형태를 만들었고, 앞에서 보이는 옆선의 폭이 넓어 뒤쪽까지 이어졌다. 뒤로 젖혀진 프렌치후드의 형태는 앞부분이 직선이었으며 앞쪽에서 보여지는 옆선의 폭이 좁아 뒤쪽의 넓어지는 통이 앞쪽으로 당겨지고 뒷부분의 통형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변화하였다. 분리된 프렌치후드의 형태는 후드에서 분리되어진 부분이 있어 2장으로 패턴이 구성되어진 것이 특징이며 U자형의 밴드부분이 곡선으로 즉 착용했을때의 앞쪽보다는 뒤쪽의 세워지는 모양을 내기 위한 패턴이 특징이다. 봉제방법은 모두 손바느질을 사용하였으며, 장식은 진주, 유색보석, 금색 브래이드, 그리고 파이핑을 사용하였다.

색상은 대부분 검정색을 사용하였으며 안감은 흰색 또는 유색도 사용되었으며, 소재는 걸감으로 벨벳과 가끔 실크를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번 제작에서는 걸감으로 벨벳을 사용하고 안감으로 실크를 사용하였다. 심지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강도를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후드의 착용방법은 3가지 형태 모두 머리에 꼭 맞는 캡을 쓰고 그 위에 착용하였으며 모두 앞머리에서 뒤쪽으로 밀려난 형태로 착용되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제작과정을 통하여 과거 헤드레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 등의 변화를 재현하여 봄으로써 현재 유행하는 패션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희보 (2000). *세계사이야기*, 서울:가람기획.
 불량쉬페인 (저), 이종남의 3인(역) (1996). *복식의 역사*, 서울: 까치.
 신상옥 (1999). *서양복식사*, 서울: 수확사.
 앤더스 블래, J·매리 가랜드 (저), 윤길순(역) (1997). *세계패션사 I*, 서울: 자작아카데미.
 이순홍외 3인 (1995). *그림으로 보는 서양복식사*, 서울: 경춘사.
 전선정 (2001). 서양근세 여성의 머리형태와 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홍숙 (2001).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정홍숙 (1999).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Brooks Picken, M. (1999). *A Dictionary of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Curner, Wilcox, R. (1945). *The Mode in Hat and Headdress*,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Howard, M. (1995). *The TudorImage*. London: Tate Gallery.
 Brooke, Iris (2000). *English Costume from the Early Middle Ages through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Macleod, C. (1996). *Tudor Portraits*, London: National Portrait Gallery.
 Norris, H. (1997). *Tudor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Ribeiro, A & Cunning, V. (1997).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Seven Centuries of Costume History in one Volume*, London: B. T. Batsford Ltd.